‘정혜결사문’ 등 목판 인경한다

순천 송광사 화엄전에 소장중인 경전목판.

송광사, 3902판 사천왕상 복장 용도로
3~4질 일본 불교학자들에 기증도

국내에 하나뿐인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문’ 목판이 인경(印經)된다.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영조)는 10월 20일부터 한 달간 지눌 스님 문집목판과 화엄전에 소장중인 경전목판 65종 총 3902판을 인경해 사천왕상 복장물로 봉안한다.

송광사가 소장중인 목판은 15~18세기에 제작된 <대방광불화엄경> 2346판, <심지경론> 252판과 <계초심학인문> <정혜결사문> 등 지눌 스님 문집, 강원교재, 조선시대 스님들의 문집으로 희귀본이 많아 귀중한 불교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목판은 80년대 ‘송광사 중창불사 회향’을 기념해 10여질 인경했으나 대부분 소실돼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인경불사를 준비해 왔다.

송광사는 이번에 총 20질을 인경해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물로 봉안하고 송광사 강원, 율원, 박물관 등에 보관하며 일본 불교학자들의 요청으로 3~4질은 일본으로 보낸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은 “목판 인경불사를 위해 전북 남원 한지 마을에서 닥이 많이 함유된 한지를 특별 주문해 확보해 놓았다”며 “인경 전문가를 초빙해 사중스님들이 인경작업을 전수받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인경불사를 통해 목판에 낀 먼지를 털어내고 바람을 쏘여 목판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인경된 목판 20여질이 복장물로 봉안되는 사천왕상은 사천왕문과 함께 훼손이 심해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재청의 지도아래 보수공사를 벌여 최근 복원불사가 끝났다. 사천왕문과 사천왕상은 조선조 광해군 원년에 조성된 문화재로 이번 보존처리 중 복장에서 ‘금강대위덕경다라니’등의 유물이 대량 발견됐다.

이준엽 기자

‘뛰뛰빵빵’ 음성포교 출발!

운불련 부산 경남 무선 봉사대 발대

(사)대한민국 운송 연합불자회(회장 이재술)는 10월 13일 부산 경남 지회 창립 및 불교교통방송 TRS 408국 무선 봉사대 발대식(사진)을 갖고 무선 음성포교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통도사 포교국장 선오 스님과 이재술 전국 회장, 박인수 제주 지회장, 정호기 부산지회장, 안효경 경남지회장을 비롯 부산 경남지회 회원 30여명이 동참했다. 포교국장 스님 법문, 여객연합불자회 회장 인사, 각 지역 지회장 임명장 수여식 등의 순으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포교국장 선오 스님은 “늘 고객을 대하는 여객 불자회 여러분들은 대승보살의 서원을 발해 물러서지 않는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 고 법문했다.

또한 이 재술 회장은 “제주 지회에 이어진 부산 경남 지회의 창립으로 전국의 여객운수 불자회의 창립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TRS 408국 무선기지국을 통한 법문, 교리 공부 등으로 달리는 법당을 구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TRS 408국은 무선기지국을 통해 단말기에서 100번을 누르면 교통, 일기, 도난차량 수배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200번은 스님들의 실시간 법문, 교리 강좌 등을 들을 수 있는 위성통신기기 시스템. 하루일과 중 대부분을 차안에서 보내는 여객업 종사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법문을 듣고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종교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6월 24일 창립된 전국운송연합불자회는 현재 400여명의 회원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휴게소 홍보 등을 통해 TRS 408국 회원을 늘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장수 죽림사 ‘용성교육관’ 낙성

용성교육관 낙성법회 모습. 용성교육관은 어린이 · 청소년들과 지역민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된다.

근세 한국불교 중흥조 백용성 스님의 사상과 독립운동정신을 교육하게 될 ‘용성교육관’이 용성 스님 생가가 있는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에 건립돼 10월 12일 낙성됐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은해사 주지 법타, 미국 관해정사 회주 반월, 해인사 율원장 혜능, 네팔 대성석가사 주지 법신 스님 등 스님과 장재영 장수군수, 양해도 장수군의장, 황주선 국가보훈처 목포지청장, 재키반자 네팔 문화국장, 노옥섭 前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유종혁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 건립을 위한 만등불사를 겸해 열린 이날 법회에서 도문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은 용성조사가 오도(悟道)한 지 118회째가 되는 뜻 깊은 날이다”며 “불교성지를 가꾸라고 하신 큰 스님의 유훈실현에 모든 불자가 동참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낙성한 ‘용성교육관’은 목조기와 108평 규모의 전통사찰양식으로 법회는 물론 어린이 · 청소년교육과 지역민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용성스님 생가 성역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죽림정사는 생가복원과 용성 기념관(유물 400여점 전시), 교육관(108평), 승방(60평) 건립에 이어 범종 법고루 불사가 마무리 되는 2005년 5월 8일 종합준공식을 봉행한다.

한편 이날 죽림정사와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등 신행단체는 법회에 앞서 룸비니 대성석가사 건립 불사기금을 석가사 주지 법신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무량종 칠보정사서 연수

무량종(총무원장 혜안)은 최근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에서 ‘제3회 중앙 승려 · 법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사진)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120여 종도가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양 교육을 비롯해 ‘종지종풍’ ‘포교와 설법’ ‘참선 수행’ 등의 강의 및 실수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혜안 스님은 “모든 종도들이 나라와 불교를 먼저 걱정하고 지혜로운 길을 제시할 때라야 비로소 종단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며 “불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처해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불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수에서는 모든 종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선정된 ‘무량선무도’ 창단식도 열렸다. ‘무량선무도’는 그동안 종단 내에 전승돼 오던 것을 수련 · 교육용으로 체계화시킨 프로그램이다. (055)883-7771 박봉영 기자

홍법사 1주년 기념행사 다채

제 15교구 본사 통도사 말사 홍법사(주지 심산)가 10월 28일 홍법사 개원 1주년을 맞아 고승초청법회를 비롯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국제불광회 부산지부인 홍법사는 10월 28일 오전 10시 대만 불광산사 종장 심정스님을 초청 ‘생사윤회의 길’이라는 주제로 법회를 여는 한편 같은날 저녁에는 가족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금정산 환경캠페인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23일 오후 7시부터는 삼천배 참회 정진기도, 23일, 28일, 31일에는 홍법사 활동사진 및 동자승 출가 사진전, 24일에는 외국인과 함께 탈춤배우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051)508-0345

천미희 기자

법흥사, 천일기도 회향법회

강원도 영월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주지 도완)는 10월 25일 경내에서 일주문 준공과 가사불사 회향, 10만등 불 밝히기와 천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오전 9시30분 2차 천일기도 회향 및 3차 천일기도 입재식을 시작으로 법요식, 일주문 준공 현판식, 가사 봉대식 및 천도재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24일 오후 7시에는 십만등 불 밝히기 점등식이 거행된다. (033)374-9177 한명우 기자

본원종 석천 스님 9주기 추모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10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본원정사 대법당에서 초대 총무원장을 지낸 석천 스님의 9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 석천문도회 회장 대운스님을 비롯해 석천문도회 소속 스님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석천 스님은 본원종 창종위원으로 활동해 초대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의 기틀을 다졌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종단 간 교류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한국불교포교사대학을 설립하는 등 포교활동에도 진력을 다해 본원종 종도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다. (02)391-4376

박봉영 기자

제주종교인협 재창립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종교인들의 협의체인 ‘평화를 위한 제주종교인협의회’(이하 평종협)가 10월 11일 북제주군 한림읍 성이시돌 회관 내 글라라수녀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재출범했다.

4개 종교 종교인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대효 스님(원명선원 회주), 방인성 교무, 이문철 신부, 박영조 목사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평화를 염원하고 환경을 살리는 일에 종교인들이 한데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재창립된 평종협은 평화를 저해하는 지역 활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과 이슈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종정협 경제발전 기원 방생

경제발전을 기원하는 범종단적인 방생의식이 치러진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대통정 지산 · 정토종 종정)는 10월 26일 정오 충북 옥천의 금강유원지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호국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1부 방생법회에 이어 부처님 10대 제자 사리친견 및 마정수기 법회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종정협의회 소속 21개 종단에서 5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